

협회소식

NEWS

본회 제3차 이사회의 개최

- 일부 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본회는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역삼동 소재 도원에서 '97년도 제3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에는 이사와 도협의회장 등 20명이 참석하였다.

전동용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의에서 이사들은 ▲제1호의안 : 지부 설치 규정 개정(안) ▲제2호의안 :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의안 : 지부·지회 조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회의는 지부 설치규정중 제2조(설치기준)와 제4조(설립절차)를 개정, 1개 시군에 2개 지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새로 지부가 설립될 경우 새로 지부가 설립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지회는 지부에 흡수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의는 일반회계중 구제역 방역성금 모금으로 늘어나는 예산 2천만원을 협찬금 수입으로 늘려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밀수신고 포상금, 밀수검거 포상금,홍보조사비, 구제역방역 민간대책기구 구성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 예산은 310,000천원에서 330,000천원으로 늘

어나게 되었다. 또한 제2검정소회계 예산 776,544천원을 17,461천원 감축, 항목간 조정하여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2검정소회계 예산은 759,083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이사회의는 회원 20명 이상을 확보한 "김포지회"를 "김포지부"로 승격해서 설립승인을 하고, 울산시지부와 논산지부, 해남지부, 순천지회의 설립 승인을 취소했다. 울산시지부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지부에 통합된 것이고, 논산지부와 해남지부, 순천지회는 회원수가 지부·지회 설립요건에 부족해 설립승인이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설립취소 안전에 올랐던 용인지부와 목천지회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립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본회 지부수는 78개에서 75개로, 지회수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

이사회회의는 또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취급하는 돼지콜레라 비발생 및 예방접종 실시 확인 증명서 발급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동용 회장은 안전 심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관철했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 확립과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사들은 노영한 전무이사로 부터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과 상반기 부서별 사업실적, 양돈회관 주식 매입 현황 등을 보고받고, 김건태 감사로부터 상반기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본회 축산물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 국회 입법 청원

- 236개 단체와 공동 - 국회의원 155명 소개로

본회는 7월 11일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본회는 농수축협중앙회와 지역축협, 업종조합,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231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5개 소비자 단체 등 총 236개 단체와 공동으로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청원서”를 155명의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개의원은 신한국당 이상배의원 등 57명,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 55명, 자민련 정일영의원 등 38명 등 총 155명이다.

본회 등은 청원서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관리업무 이원화로 축산물 소비확대 추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축의 특성상 사육단계에서 부터 위생적인 관리와 동시에 도축·가공·유통 단계에서 가축위생 전문가에 의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가 생산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일원화 되도록,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서는 또 “가공식품 전과정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 제반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는 농림부가 관할토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판매단계의 축산식품 검사에 참여토록 하되 검사 및 조사결과 발표는 농림부와외의 사전협의를 거쳐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 상반기중 검정돈 1,542두 농가 분양

- 일당증체량 지난해보다 7% 향상

본회는 상반기중 제1검정소와 제2검정소를 통해 검정에 합격한 검정돈 1,542두를 경매를 통해 양돈 농가들에게 분양했다. 특히 이들 검정돈은 지난해에 비해 일당증체량이 평균 7%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검정사업이 종돈개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제1, 2검정소에서 지난 상반기동안 실시한 종돈능력검정 결과, 일당증체량은 제1검정소가 96년 성적에 비해 7% 향상된 975g, 제2검정소는 9% 향상된 981g으로 나타났다.

제1검정소의 올 상반기 입식두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월 평균 215두씩 총 1,232두를 입식하였으며 843두(월 평균 140두)를 경매 분양했다. 검정종료두수는 1,291두였으며 등지방 두께는 1.41cm, 사료요구율은 2.34, 선발지수는 223으로 나타났다.

제2검정소의 경우는 종돈 입식두수가 월 평균 198두로 96년 평균 입식두수 211두보다 13두 줄었으며, 총 입식두수는 1,190두를 기록했다. 검정종료두수는 1,175두였으며, 등지방 두께 1.41cm, 사료요구율 2.27, 선발지수 227로 나타났다.

검정돈의 경매두수는 1,2검정소를 합쳐 1,542두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171두)가 증가했다. 검정돈의 낙찰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9%(17만5천원) 상승한 77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동안 농장검정은 제1검정소가 243두, 2검정소가 841두를 실시했다.

구제역 방역성금 37개지부·지회에서 8백48만원 납부

외국으로부터의 돼지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구제역 방역성금이 7월 18일 현재 37개 지부·지회로부터 8백48만원이 모금되었다.

구제역 방역성금은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대전 신협연수원에서 열린 본회 제17차 임직원연수회에서 참석 임원·지부장들의 만장일치의 결의에 따라 모금되는 것으로 회원 1인당 1만원씩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본회는 구제역 방역성금을 모금하여 밀수신고 포상금, 밀수검거 포상금, 홍보조사비, 구제역 방역 민간대책기구 구성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7월 18일까지 지부·지회별로 납부된 성금 내역은 표와 같다.

노영한 전무, 대만 구제역 발생실태 조사후 귀국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대만구제역 발생실태 조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대만을 방문, 대만의 돼지구제역 발생실태와 정부와 연구기관의 방역대책 등을 조사한 후 귀국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연구기관, 검역기관, 민간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대만의 농업위원회(농림부 해당)와 양돈과학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 육가공공장, 양돈농가 등을 방문, 구제역 발생실태와 경제적인 피해정도, 정부와 양돈농가들이 취하고 있는 구제역 박멸대책, 향후 대만의 양돈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이들 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정부 정책과 검역,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단에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를 비롯해 임경종 농림부 가축위생과 검역계장, 강영배 수의과학연구소 해외전염병과장장 김용주 연구사, 조현호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 등 5명이 참여했다.

<표> 지부·지회별 구제역 방역 성금 납부 현황(97년 7월 18일 현재)

(단위 : 원)

지부(회)명	모금액	지부(회)명	모금액	지부(회)명	모금액
강 화 지 부	170,000	진 천 지 회	120,000	나 주 지 부	10,000
김 포 지 부	240,000	청 주 청 원 지 부	260,000	영 주 봉 화 지 부	200,000
서 울 지 부	120,000	충 주 지 부	10,000	거 창 지 부	280,000
안 성 지 부	10,000	대 전 지 회	50,000	고 성 지 부	540,000
안양시흥지부	200,000	서산태안지부	310,000	김 해 지 부	680,000
양 주 지 부	100,000	아 산 지 부	370,000	마 산 지 부	350,000
양 평 지 부	230,000	예 산 지 부	60,000	창 념 지 부	200,000
여 주 지 부	270,000	천 안 지 부	200,000	하 동 지 회	170,000
인 천 지 부	320,000	홍 성 지 부	350,000	함 안 지 부	220,000
화성수원지부	250,000	고 창 지 부	170,000	함 천 지 부	400,000
괴 산 지 부	210,000	김 제 지 부	250,000	남 제 주 근 지 부	380,000
영 동 지 부	230,000	정 읍 지 부	200,000		
제 천 지 부	200,000	구 례 지 부	150,000	합 계	8,480,00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는 6월 25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도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공통 관심사와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본회 전동용 회장과 송찬원 축협중앙회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축산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단체들의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축산 단체장들은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위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 상반기 감사 수감



본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김건태 감사와 하수갑 감사로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김건태, 하수갑 감사는 3일간 본회 일반사업과 지도사업, 자조금사업, 제1, 2검정소 검정사업 증상반기에 본회가 추진한 사업계획대 실적과 예산대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이고 10일에는

제2검정소를 방문, 현장감사도 실시했다.

도협의회, 지부 소식

경남도협, 경남 양돈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경남도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지난 7월 16일 경남 밀양시소재 산천 자연관광농원에서 경남도 축산과장과 경남 소재 시군 축산과장과 계장, 축협 및 양돈조합장, 축산관련대학 교수, 본회 경남소재 시군 지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대일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 공동방역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양돈농가들이 양돈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과 애로사항을 주로 건의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날 건의된 사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양돈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양돈농가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충남도협,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적극 협력키로

충남도협의회(회장 김현병)는 지난 7월 7일 정오 서천군 소재 이조갈비에서 회의를 열고,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충남도협의회회는 이밖에도 돼지분뇨처리 문제와 양축자금의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원리금 상환의 연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협, 제7회 전북양돈인대회 개최

전북도협의회(회장 송정기)는 지난 6월 20일 완주군 소양면 소재 운수연수원에서 제7회 양돈인 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 양돈인 350여명이 참석하여 배구와 부부 발육고달리기, 여자 축구공 넣기 등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충북도협, PRRS 대책 등 협의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4일 정오 청주시 소재 흥도회관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최근 양돈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PRRS의 예방과 피해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도협의회는 또한 분뇨처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육천지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협의회장에 박성화씨 선출



박 성 화
(제주도협의회장)

제주도협의회는 지난 6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주도협의회장에 박성화 서남지부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충세 제주지부장과 이문하 남제주군지부장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박성화 제주도협의회장은 제주도에서 25년간 교직에 몸뚱았으며, 현재는 남제주군 표선면에서 표선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협의회 업무는 서남지부 사무실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 토크

미국 돼지 사육두수 5,815만두

- 6월 1일 현재, 하반기에 5-6% 증가 예상

미국 농무성(USD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미국의 총 돼지 사육두수는 5,815만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 증가했다. 이중 번식용은 695만두로 1% 증가했고, 출산용은 5,120만두로 2% 증가했

다. 한편, 금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자돈 생산두수는 2,550만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 증가했으나, 95년에 비해서는 3% 감소했다. 모돈두수는 295만두이다.

분만 1두당 자돈두수는 전

년의 8.47두에 비해 8.65두로 높아졌다. 양돈규모에 따른 분만두수는 가지가지이다. 즉 99두 이하에서는 7.6두, 2,000두 이상에서는 8.8두였다. 또한 앞으로의 양돈동향에서는 금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모돈 291만두가 분만할 예정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 약 5% 증가되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289만두의 모돈이 출산을 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약 6% 증가한 것이다.